

## 「궁을가」의 내력과 대순사상에서의 의미

최치봉\*

### ■ 국문요약

본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로, 첫째는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전경』에 언급된 「궁을가」와 가장 유사한 가사집을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판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셋째는 대순진리회에서 「궁을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초에 「궁을가(弓乙歌)」는 동학도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었고, 필사되고 전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이본(異本)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전경』에는 「궁을가」의 내용이 두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사명당(四明堂)에 관한 내용으로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동학과 도통군자에 관한 내용으로 수운을 대신하는 선생이 증산을 지칭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구절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궁을가」가 증산의 강세와 천지공사가 언급된 신비하고 예언적 성격의 가사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전경』에서 언급된 「궁을가」와 가장 유사한 판본을 한국가사문학 소장자의 「궁을가」(UCI: G001+KR08-4850000101016.D0.V00004289)로 유추하였다.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궁을가」를 통해 당대 불안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정감록』 등의 예언서에 따라 길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도통군

\* 아시아종교연구원 연구원, E-mail: awsdrf42@naver.com  
北京大學《儒藏》中心, 儒學院 博士研究生

자가 또 난다는 구절은 민중들의 고난을 덜어줄 구세주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도는 천지공사로 마련된 것으로, 피난하는 길과 보신(保身)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대순사상에 있어 궁을(弓乙)은 도참서의 피난처나, 영부(靈符)를 통한 형태를 넘어서 태극의 도 아래에서 증산의 천지공사를 직접 이어받은 정산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라는 뜻이 풀이해 볼 수 있다.

**주제어:** 대순사상, 「궁을가」, 참동학, 궁을(弓乙), 사명당(四明堂)

- I. 들어가는 말
- II. 「궁을가」의 내력과 종류
- III. 『전경』에 언급된 「궁을가」 가사집은 무엇인가?
- IV. 대순사상에서 궁을가의 의미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전경』에 언급되는 「궁을가(弓乙歌)」는 가사의 일종이다. 가사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온 문학의 한 갈래로 율문(律文)<sup>1)</sup>이면서도 서정, 서사, 교술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문학 장르이다. 형식상 4음보의 연속체인 율문이며, 내용상 수필적 산문인 가사는 산문과 율문의 중간적 형태로 조선조의 대표적인 문학 형식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궁을가」는 “입산 삼일 후에 천하사를 알았다.”<sup>3)</sup>고 평가되는 정북창(鄭北窓, 1506~1549)의 저작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인 『용호비결(龍虎秘訣)』을 본따 그를 ‘용호대사’나 ‘용호도사’라고도 칭하는데, 서명이 「용호도사궁을가」<sup>4)</sup>로 되어 있는 「궁을가」도 존재하며, 일부 자료에서는 ‘용호대사소저(龍虎大師所著)’<sup>5)</sup>라고 밝히고 있기

1) 율문(律文):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 또는 운율이 있는 글.

2) 『한국가사문학』, 「가사문학의 정의」 (<http://www.gasa.go.kr>, 2023. 5. 15. 접속)

3)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35절.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 古1496-21.

5)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 지지가』에 수록된 가사작품 6편에 대한 검토」, 『은지는총』 51 (2017), p.167.

도 하나, 그의 저작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四明堂)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 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하셨도다.<sup>6)</sup>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sup>7)</sup>

「궁을가」는 『전경』에 두 차례 언급되고 있다. 첫째는 사명당에 관한 내용으로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동학과 도통군자에 관한 내용으로 수운을 대신하는 선생이 증산을 지칭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이 구절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민간에 특히 동학 신도들 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궁을가」가 증산의 강세와 천지공사가 언급된 신비하고 예언적 성격의 가사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로, 첫째는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전경』에 언급된 「궁을가」와 가장 유사한 가사집을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판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셋째는 대순진리회에서 「궁을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 『전경』, 행록 5장 15절.

7)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 II. 「궁을가」의 내력과 종류

현재 출간연대와 저자가 확인되고 또한 가장 널리 알려진 「궁을가」는 1932년 경상북도 상주 동학교당의 『용담유사』<sup>8)</sup> 권36에 실려있는 것이다. 판본 중의 하나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으며, 수운의 『용담유사』와 제목이 같아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김주희(金周熙, 1860~1944)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흔히 「상주 동학가사」<sup>9)</sup>라고 칭해진다.

상주 동학교는 1922년 5월 29일 교당 설립 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가사 간행사업을 진행하여 1919년부터 1932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40책, 108편의 가사를 묶어 간행사업을 벌였다. 간행된 가사는 수운이 지은 『용담유사』 8편을 포함하여 김주희가 창작하였다는 가사와 그 외 다른 교당의 가사까지 합한 것으로 활판, 석판, 목판 등의 방법으로 간행하였다.<sup>10)</sup> 상주 동학교 내부에서는 권1의 「용담유사」와 권2의 「임하유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주희가 창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권36의 「궁을가」 역시 김주희의 저작물이 된다. 하지만 상주 동학교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증산이 「궁을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상주 궁을가」는 기존의 「궁을가」를 수집하여

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용어』, 『대순회보』 92 (2009),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1863년 7월 23일에 최시형에게 복접주인이라 하고 종통(宗統)을 계승시켰지만, 호남의 각 접주들은 이에 반발하여 스스로 남접이라 칭하고 북접에 맞섰다.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시형이 죽고 3대 손병희에 이르자, 남북접의 도통(道統) 전수 문제가 더욱 노골화되어 동학의 여러 원로들은 스스로 독립하여 각자의 종교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때 상주 장바위골에서는 신도 7,000명 규모의 경천교(敬天敎, 1904~1912)가 만들어졌다. 상주동학은 경천교에 몸담았던 김주희(金周熙)에 의해 1922년 5월 29일 경북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에 설립되었다.”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을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79>) 6, 2023. 5. 15. 접속) “상주본 「궁을가」는 4·4조로 된 장편가사인데, 다른 「궁을가」와 비교할 때, 1행이 끝날 때마다 “궁궁을을(弓弓乙乙) 성도(成道)로다.”를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4음보 1행으로 총 341행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그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궁을가」는 궁을에 대한 평이한 설명보다는 “궁궁을을 성도로다.”의 반복을 통한 가사 자체의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다.”

10) 김기현, 「동학가사에 나타난 동학의 변모: 용담유사와 상주 동학가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16 (1995), p.5.

수정이나 편집을 가했을 확률이 높다.<sup>11)</sup>

아래의 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가사문학관 소장의 자료들을 나열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종류의 「궁을가」가 소장되어 있고, 한국가사문학 DB<sup>12)</sup>에서 제공하고 있는 「궁을가」에 관한 자료는 총 21건으로 제작연대와 작자를 알 수 없고, 가사집의 구성이나 체계도 모두 제각각이다.

<표 1> 궁을가의 종류와 『전경』 관련 구절 비교표<sup>13)</sup>

번호	제목	분류	구성	『전경』 관련 구절	국가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UCI)
국1	궁을가 / 김주희 編	고문서_국한문혼용	용담유사 제삼십육에 해당함	朝鮮江山 明勝地로 道統君子 나실새라 弓弓乙乙 成道로다 四明堂이 更生하니 昇平世界 不遠이라 弓弓乙乙 成道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3610-30
국2	용호도사 궁을가	고문서_국한문혼용	궁을가, 난성가, 십신장부가, 구인장부가, 팔조가, 칠정가, 공성가	朝鮮江山名山이라 道通君子 笏났구나 弓弓乙乙 成道로다 ... 泗溟堂이 更生이라 海外之國 물러간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1496-21
가1	궁을가	가사_국문	궁을가, 경탄가, 임하유서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주 笏났도다 스명당이 부싱하니 스히티평 되리도다	G001+KR08 -485000009 1026.DO.V0 0000145
가2	궁을가	가사_국문	교혼가 경신, 안심가라 경신, 용담가라, 몽중노쇼문답가라, 도슈사 신유, 권학가 임술, 도덕가 임술, 흥비가 계희, 궁을가, 금무가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 -485000009 0807.DO.V0 0000391

11)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pp.123-124 참조.

12) 『한국가사문학』 (<http://www.gasa.go.kr>, 2023. 5. 15. 접속)

13) 번호 항목에 ‘국’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고, ‘가’는 한국가사문학관 소장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궁을가」 필사본들이 있지만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제외했다.

가3	궁을가	가사_국문	용담가라, 교훈가라, 몽중노소문답가라, 도슈가라,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안심편, 궁을가, 입하유서, 슈납중성이라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쏘냐구나 사명당이 강심하니 승평세계 불원이라	G001+KR08 -485000009 0807.DO.VO 0000462
가4	궁을가	가사_국한 문혼용	궁을가, 천심경제일 편, 비무유사가회설, 해인경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 -485000009 0807.DO.VO 0000786
가5	궁을가	가사_국문	입하유서 지지가, 궁을가, 삼재가라, 도성가라, 연월가라, 갑자가라, 직금가라	도선강산 명성지여 도통군자 쏘잇구나 사명당이 강심인가 탁평세계 불원이라	G001+KR08 -485000009 0730.DO.VO 0001008
가6	궁을가	가사_국문	궁을가, 경탄가, 도 성가, 입하유서	조선강산이 명산이라 도통군자조타조타 사명당이 강심하야 스히탁평 되리로다	G001+KR08 -485000009 1026.DO.VO 0001495
가7	궁을가	가사_국한 문혼용	-	朝鮮江山 明勝地로 道統君子 나실새라 弓弓乙乙 成道로다 四明堂이 更生하니 昇平世界 不遠이라 弓弓乙乙 成道로다	G001+KR08 -485000009 1026.DO.VO 0001499
가8	부부가 <sup>14)</sup>	가사_국문	-	조선강산명산이라 도통군자쏘냐구나 사명당이 강심하니 사회태평 되리로다	G001+KR08 -485000009 1026.DO.VO 0001510
가9	궁을가	가사_국문	청임유서, 궁을가, 삼재가, 부인수도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쏘냐구나 사명당 갱생하니 승평세계 불원이라	G001+KR08 -485000009 0929.DO.VO 0001849
가10	효도사 궁을가라	가사_국문	-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 -485000010 1013.DO.VO 0003693
가11	궁을가	가사_국한 문혼용	교훈가, 용담가, 몽 중노소문답가, 도수 가,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도성가, 궁 을가, 격검가	朝鮮江山 明山이라 道通君子 쏘냐구나 四明堂이 更生하니 太平世界 不遠이라	G001+KR08 -485000010 1016.DO.VO 0004289

가12	궁을가	가사_국문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소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팔철, 궁을가, 도성가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쏘나구나 식명당이 김성흔니 싱평세계 불원이라	001+KR08-4850000101 016.DO.V00 004310
가13	궁을한궁을가	가사_국문	궁을한궁을가, 삼재가, 연월가, 도성가, 내슈도하난법이라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485000010 1016.DO.V0 0004430
가14	궁월가라	가사_국문	-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485000011 0929.DO.V0 0006235
가15	궁을가	가사_국문	대호지로가, 오황불이, 열씨고나, 합성가라, 길경가라, 승선가라, 서운가, 본문가라, 평난가라, 육자박이, 홀각청연회심가, 씨름판가, 궁을가, 불도가, 선도가, 유도가, 천지가, 일월가, 산천가, 부부가, 부자가, 서양예수재자말삼, 선화안논새가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485000011 0929.DO.V0 0006339
가16	삼덕전궁을가	고문서_국한문혼용	-	해당 구절 없음	G001+KR08-485000012 0913.DO.V0 0006874
가17	궁을가	고문서_국한문혼용	-	朝鮮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쏘잇구나 四明堂 更生흔니 昇平世界 不遠이라	G001+KR08-485000012 0908.DO.V0 0006887
가18	궁을가	고문서_국한문혼용	-	가사의 앞부분만 필사되어 있어 해당구절 확인 불가	G001+KR08-485000012 0920.DO.V0 0006962
가19	궁을가	고문서_국한문혼용	-	朝鮮明山 山川이라 山川마닥 道通君子 處處로다 寺明堂 更生흔니 四海泰平 합이로다	G001+KR08-485000012 0920.DO.V0 0006963



가20	삼덕전 궁을가 全	고문서_국 한문혼용	삼덕전궁을가, 채약 가, 춘추직급가, 천 지도덕가, 개명포덕 가, 시운가, 篇末揭 韓靜山先生夢得著龜 贈讀易韓某書	해당 구절 없음	G0001+KA D000.DAM. 090522.D0.0 9090
가21	무제	고문서_국 한문혼용	궁을가, 궁을가, 무 제, 부진불경	朝鮮明山 山川이라 山川마닥 道通君子 處處로다 寺明堂 更生허니 四海泰平 할이로다	G0001+KA D000.DAM. 090522.D0.0 9090

### III. 『전경』에 언급된 「궁을가」 가사집은 무엇인가?

증산이 「궁을가」를 언급한 시기는 천지공사(1901~1909)의 시기인 데,<sup>15)</sup> 이 당시에 이미 동학도들에 의해 「궁을가」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필사되고 전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이본(異本)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 전해지는 「궁을가」는 형식과 내용에 각각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가운데 증산이 직접 접했거나 혹은 알고 있었던 것과 가장 유사한 「궁을가」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당시의 「궁을가」에 대해 유추하기 위해 첫째로 주목할 점은 당대의 기록이다. 매천 황현(黃玹, 1855~1910)<sup>16)</sup>은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

14) 두루마리에 필사된 동학가사 작품이다. 그 서두에 「부부가(夫婦歌)라는 제목이 붙어있기는 하나, 실은 「궁을가(弓乙歌)」라는 작자 및 제작 시기 미상 작품의 중간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을 매행 끝에 반복되는 “궁궁을을 성도로다”라는 후렴구만 빼고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15) “조선 강산 명산이라”를 언급한 시기는 1903년 음력 11~12월 혹은 1907년 음력 6월경으로 추정되며, “사명당 갱생”을 말씀하신 시기는 1909년 음력 4월경으로 추정된다.

16) 『국가보훈부』, 『황현』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11310>, 2023. 5. 15. 접속), “『매천야록』과 『오하기문』은 그가 저술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까지 47년간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서술한 근대사 관련 중요 자료이다. 『매천야록』은 당시의

(憂國之士)인데, 그의 저서인 『오하기문(梧下紀聞)』은 자신이 보고 들은 동학농민전쟁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 야사(野史)이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양태를 살펴보면, 「궁을가」는 동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격검가」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갑오년, 1894년 5월 12일 기록] 지난날 최시형은 개인적으로 글을 써 퍼내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포덕문(布德文)」·「격검가(擊劍歌)」·「궁을가(弓乙歌)」·「강신주(降神呪)」·「강령주(降靈呪)」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이라고 했다.<sup>17)</sup>

[을미년, 1895년 6월 25일 기록] 5월 이후로 수령과 사대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적(수운을 칭함)을 추종했다. 어리석은 백성은 이를 본받아 바람에 먼지만 날려도 스스로 도적에게 가서 복종했고, 『동경대전』을 위대한 성인의 저작으로 간주했다. 마을에 강당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경대전』을 열심히 익혔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격검궁을지가(擊劍弓乙之歌)」를 유창하게 불렀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도 「시천주」를 읊는 소리가 넘쳐났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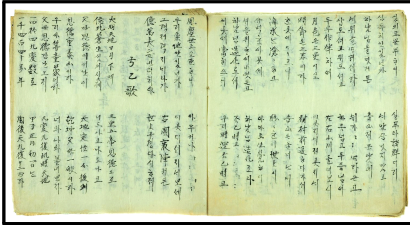
황현의 기록과는 다르게 「격검가」와 「궁을가」는 『동경대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19)</sup> 이는 황현의 정보수집에서 정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이 두 가사는 동학신도들에게 많이 불렀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추할

역사전반을 서술한 것이라면 『오하기문』은 특히 자신이 보고 들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 것이다.”

17) 황현,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김종의 옮김 (고양 역사비평사, 2016), p.215.

18) 같은 책, p.383.

19) 같은 책, p.215, 각주 218, “『동경대전』은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이 스승인 수운 최제우의 가르침을 집성한 경전이다.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축문」, 「주문」, 「입춘시」, 「절구」, 「강시」, 「좌잡」, 「화결시」, 「탄도유심급」, 「결」, 「우음」, 「광문」, 「제서」, 「영소」, 「필법」, 「유고음」, 「우음」, 「통문」, 「통유」, 「포덕식 외」, 「무자관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검가」와 「궁을가」는 『동경대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강신주」와 「강령주」는 독립된 주문이 아니라 「주문」의 일부 내용이다.”



〈그림 1〉 「궁을가」(가11) 원본<sup>20)</sup>

수 있는 점은 당대에 엮은 가사집은 이 두 가사가 같이 수록돼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전경』의 구절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당대의 「궁

을가」였다고 여길 수 있다.<sup>21)</sup>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에 대해서는 <표1>의 자료들에서 “조선 강산 명산이라”와 “조선강산 명승지(明勝地)여”의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명승지에 관한 것을 후보에서 소거하기로 한다. “사명당(四明堂)”에 대해서는 국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그 한자를 알 수 없기에 제외하고, 또한 국한문 혼용 가운데 “사명당(泗溟堂)”과 “사명당(寺明堂)”을 소거해 한자 표기가 맞는 것을 추정하면, ‘가11’, ‘가17’이 가장 유력해진다. 그중에서 특히 ‘가11’은 구성에서 「궁을가」에 이어 「격검가」를 소개하고 있어, 현존하는 자료들 가운데 증산이 중도들에게 언급한 「궁을가」 판본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자료 ‘가11’은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작자와 제작시기가 미상이며 규격은 20.5\*19.5cm이며 전소장자는 김경옥이고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보관 중이다. 국한문 혼용의 필사본이다. “大明天地日月下에 億兆蒼生싱겨실제 三星五帝恩德으로 너도나코나도나코”로 시작된다.<sup>22)</sup> 4음보 1행으로 총 163행이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0) 『한국가사문학』, 「궁을가」 (<http://www.gasa.go.kr>, 2023. 5. 15. 접속)

21) 박병훈,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 문화』 41 (2021), pp.14-15 참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천지공사시기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않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궁을가와 「검걸」을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유사하여 같이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하기문』에 언급되는 「궁을가」가 지금 전해지는 「궁을가」와 같은 성격의 가사라고 여길 수 있다.”

22) 박병훈의 「궁을가 연구」에 따르면, 이 자료는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에 속한다.

〈표 2〉 「궁을가」(가11)의 주요 내용 정리표

행	주요 내용
1-6	천지, 일월, 삼황오제, 부모의 은공으로 태어났으니 궁을가를 부름으로써 은덕을 갚자.
7-11	끊임없이 변화하는 천지도수를 알지 못하고 각기 재멋대로 주장한다.
12-15	도수는 정해져 돌아가니 궁을의 성진(星辰)이 임어하여 조화하는 도다.
16-22	수도하여 도통하며 창생은 덕으로 다스려지니, 천하의 대본(大本)은 두루 내린 궁을의 노래이다.
23-30	정심(正心)하여 남에게 적악(積惡)하지 말라,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31-34	궁을가를 지성으로 부르면 국태민안(國泰民安)되고 외국(外國)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리라. 요순의 기풍이 일어나나 도인 말고는 누가 알리오. 발동 말고 수도하면 도하지(道下止)가 이것이라.
35-58	이재전전(利在田田) 찾지 말고 궁을가를 불러라, 충효자는 삼계팔난이 비껴간다.
59-90	길지(吉地) 찾아 떠나지 말라 살아날 방책은 나에게 있으니, 어진 마음을 가지고 궁을가를 불러라.
91-105	환란이 일어남도 천지도수에 정배됨이나, 궁을가로 창생의 도탄을 없애자.
106-107	“朝鮮紅山 明山이라 道通君子 또났구나, 四明堂이 更生하니 太平世界 不遠이라”
108-114	지금의 천지는 불안하나 천지운수에 따라 천명을 내리니 수도하여 도통하면 조화를 이루리라.
115-121	이재궁궁(利在弓弓)은 이곳이라, 악한 자는 해를 입고 선한 자는 살리니 신명이 선악을 구별하리라.
122-139	궁을의 조화가 드러나면 궁을가를 싫어할 이가 없으나, 지금의 사람들이 헛된 말이라 믿지 않는도다. 이 역시 천지의 도수라 어찌하겠느냐, 복이 있는 자는 믿을지이다.
140-148	천하의 대본은 명덕(明德)이 제일이라. 이 노래로 제세(濟世)하고 포덕(布德)하니, 피난 가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정심(正心), 정기(正氣)하면 무고(無故)하리라.
149-163	길지를 찾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천하만민이 각자의 직업에 힘쓰며 궁을가를 불러라.

전반적으로 「궁을가」를 통해 당대 불안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정감록』 등의 예언서에 따라 길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수도하여 남에게 덕을 베풀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도수나 별자리를 언급하며,

천지의 운세가 바뀔을 언급하고 지금의 위태로운 시절이 좋은 시절로 곧 바뀌리라는 소망을 노래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통군자가 또 난다는 구절은 민중들의 고난을 덜어줄 구세주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 IV. 대순사상에서 궁을가의 의미

궁을(弓乙)은 궁궁(弓弓) 또는 궁궁을을(弓弓乙乙)로 쓰이는데 이 용어는 『정감록』에서 처음 보이고 있다.<sup>23)</sup> 『정감록』에서 궁을은 상징 문자로서 구원처를 암시하고 있다.<sup>24)</sup> 즉, 난세에 목숨을 부지할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학을 거치면서 이 궁을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최시형의 주장으로 궁을을 ‘마음’으로 여긴다.<sup>25)</sup> 둘째는 이돈화<sup>26)</sup>의 주장으로 태극과 그 천심(天心)을 궁을로 여긴다.<sup>27)</sup> 셋째는 태극을 원(圓)으로 보고 궁을을 방(方)으로 보아 원

23) 황현, 앞의 책, p.223, 『감록』의 원본에는, 임진년 전란은 ‘이재송송’,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 난은 ‘이재가가’, 조선 말기의 국운은 ‘이재궁궁을을’이라고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다. “일본이 이어송을 만나 패하였으니 송송이라는 예언이 적중했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을 때 마침 날씨가 몹시 추워서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니 가가도 적중했다. 다만 궁궁을을이 앞으로 무엇을 예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4) 『정감록』, 「도선비결」, “임진년에 섬 오랑캐가 나라를 좀먹으면 소나무와 잣나무에 의지할 것이요, 병자년에 북쪽 오랑캐가 나라에 가득하니 산도 이롭지 못하고 물도 이롭지 못하고 궁궁이 이롭다(壬辰島夷蠹國 可依松栢 丙子坎胡滿國 山不利 水不利 利於弓弓).”

25) 『해월신사법설』 8, 영부주문 2절, “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이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라」 하셨으니, 궁을의 그 모양은 곧 마음 십자이니라(經曰「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弓乙其形 卽心字也」.)”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돈화」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043>, 2023. 5. 15. 접속), 이돈화(李敦化, 1884~1950): 일제강점기 천도교 중앙총리원 상주 선도사, 천도교청년회 지육부장, 천도교청년당 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천도교인.

27) 이돈화, 「천도교경전석의(1)」, 『아세아연구』 6-2 (1963), p.242, “① 영부는 환율님의 마음을 이름이다. ② 영부의 이름을 선약이라 하시니 선약은 곧 장생불사를 이

과 방은 천지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전체로 여긴다. 이외에도 운동 또는 변화의 원리, 원만무애의 상징, 이재전전(利在田田), 약(弱)의 파자, 활활(活活) 등으로 설명한다.<sup>28)</sup> 추측건대 동학의 궁궁(궁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은 동학이 후대로 전수되는 과정 중에 확장되고 기존의 도참설에 내용들이 덧붙여진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궁을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수운이 상제에게 천명과 신교를 받을 때 영부를 받았고, 상제가 직접 이 영부(靈符)가 선약(仙藥)이며, 그 형상은 태극이고 또 그 형상은 궁궁이라고 밝혀주었다는 점이다.<sup>30)</sup>

대순진리회의 경전이나 훈시에는 궁궁이나 궁을에 대한 해석이나 특별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 당시에는 도인들 사이에 궁을과 관련한 비결서나, 이와 관련한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인용문은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은 후 태극도에 입도한 수도인들의 경험담인데, 관련한 구절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저는 이 비결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당시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세상이 바뀌어져 일본이 물러간다는 것과 그 후에 ‘弓弓乙乙(궁궁을을)’에 해당하는 도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sup>31)</sup>

름이다. 천주의 영심(靈心)은 그 본질이 죽지 않고 기리 삶으로써 이름을 선약이라 한다. ③ 태극과 궁궁은 이름은 다르되 형상은 같다. 이는 한울님의 심령을 형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태극은 우주의 본체로서 음양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전체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리고 음양에서 팔괘가 갈리어 천지 만물이 생겼다 하였은 즉 태극은 실로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영부는 만물의 어머니인 한울님의 영심이다.”

28) 조재훈, 『조재훈 문학선집 3, 동학가요연구』 (서울: 수출판사, 2018), pp.51-112 참조.

29) 조선왕조실록에 『정감록』이 처음으로 언급된 시기는 정조 6년(1782년) 11월 20일의 기록이다. 당시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았기 때문에 정본은 존재하지 않고, 25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필사되며 내용이 재창조되었다.

30) 『동경대전』, 「포덕문」, “吾有靈符 其名 仙藥 其形 太極 又形 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31) 대순진리회 홍보팀, 「대순진리회 감사원장 류기찬」, 『대순회보』 70 (2007).

한번은 형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도의 진리에 대해 물어봤더니 궁궁을을도하지(弓弓乙乙道下止)라고 하면서 궁궁을을은 태극의 모습이니 태극인 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태극의 이치로 풀이를 했습니다.<sup>32)</sup>

처조부께서는 김구(金九), 신익희(申翼熙) 선생 같은 분들과 독립운동하다 오셨습니다. 손주 사위인 저에게 『정감록』에 있는 비결을 들려주셨습니다. ‘도하지(道下知)<sup>33)</sup> 궁궁을을(弓弓乙乙)’이라고 하시면서 방공호를 파서 피난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도(道)를 잘 모르던 때였지만 전쟁을 치루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궁궁을을(弓弓乙乙) 도하지(道下知)’ 하면서 피난처를 찾아서 부산으로 가야 산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sup>34)</sup>

일제강점기에 이어서 6.25까지 겪은 당시의 사람들은 삶에 있어 무엇보다 보신(保身)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에 비결서의 예언은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한편으로 동학을 거쳐 내려온 궁을에 대한 관념은 단순히 십승지 같은 피난처가 아니라, 수신하여 내 몸을 보존하고 나라를 살리는 종교적 상징체계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태극도(太極道)라는 이름의 종단은 궁을이라는 상징체계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상제는 인세에 두 번의 계시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1860년 미륵금불에 임하는 동안 수운에게 내린 것이고, 그다음은 화천 한 뒤 1917년 정산에게 내린 것이다. 수운에게의 계시는 인간을 통해 조선이 처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 계시는 천지공사를 잇는 종교적 가르침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과

32) 대순진리회 교무부, 「사정위원장(司正委員長) 이재근(李在根)」, 『대순회보』 78 (2007).

33) ‘道下知’는 『격암유록』에 나오는 말인데, 『정감록』의 이본(異本) 가운데 ‘道下止’ 대신 ‘道下知’를 사용한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34) 대순진리회 교무부, 「한성방면 조영철 선감」, 『대순회보』 80 (2008).

35)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참조.

정에서 증산은 동학의 실패를 겪은 민중들에게 진정한 동학을 다시 실현하는 참동학을 주창하여 삶의 희망과 활로를 열어주고자 하셨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궁을’ 역시 참동학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나가는 말

『전경』에서 밝히듯이 대선생의 갱생은 수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운을 대신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제한 증산이 곧 대선생(代先生)이다. 구원자로 강제한 증산이 시행한 일은 민중들을 위해 단지 환난 속에서 임시로 피난할 길지를 알려준 것도 아니요, 수운에게 가르쳤던 영부로 질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다. 증산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삼계대권을 공사를 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고자 하였으니,<sup>36)</sup>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곧,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도는 천지공사로 마련된 것으로, 피난하는 길과 보신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궁을가」에 언급되고 『전경』에서 밝히고 있는 네 가지 명당을 통해 공사를 보는 것도 천지공사의 일환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궁을가」는 수운을 이어 등장한 증산과 천지공사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 보인다. 「궁을가」의 내용 가운데는 민중의 고난을 덜어줄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내용, 피난을 가지 말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심정기하여 마음을 고쳐라는 내용,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쌓으라는 내용, 수도하여 도통하라는 내

36) 『전경』, 공사 1장 2절.



용, 천지도수에 따라 요순시대가 돌아온다는 내용 등에서 이미 종교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의 수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은 정산의 태극도를 참동학이자 새로이 마련된 종교적 상징체계인 궁을이라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당 역시 “수운가사는 우리 얘가지 다른 것이 아니다”<sup>37)</sup>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동학도들이 염원했던 새로운 세상인 후천, 새로운 구세주에 대한 갈망, 천지공사의 예언 등이 대순사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였던게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의문점은 어떻게 「궁을가」에 증산과 관련한 예언이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세간의 인식처럼 정말 정복창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천기자동(天機自動)<sup>38)</sup>에 의해 세간에서 자연스럽게 퍼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도수와 천지공사는 오묘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대순사상에 있어 궁을은 도참서의 피난처나, 영부를 통한 형태를 넘어서 태극의 도 아래에서 증산의 천지공사를 직접 이어 받은 정산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라는 뜻이 풀이해 볼 수 있다.

특히, 「궁을가」 33행에 “발동(發動) 말고 수도(修道) 하면 도하지(道下止)가 이거시라”라는 것은 외부의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수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증산은 “수운(水雲) 가사에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 두라”<sup>39)</sup>라고 하셨으니, 「궁을가」의 예언적 성격은 현재도 진행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7) 『훈시』, 기사(1989)년 2월 8일 훈시 (양력 1989. 3. 15.)

38) 황현, 앞의 책, p.233, “동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난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너도나도 믿고 몰려들었다. 그러고 마침내 「궁을가」를 지어 서로 느낌을 공유하고, … 활시위를 그린 다음 그 아래 을자를 써넣어 궁을의 예언에 맞추고자 노력했다.”

39) 『전경』, 행록 5장 17절.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훈시』, 종단 내부자료.
- 『동경대전』
- 『정감록』
- 『해월신사법설』
-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 김기현, 「동학가사에 나타난 동학의 변모: 용담유사와 상주 동학가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16, 1995.
- 대순진리회 홍보팀, 「대순진리회 감사원장 류기찬」, 『대순회보』 70, 2007.
- 대순진리회 교무부, 「사정위원장(司正委員長) 이재근(李在根)」, 『대순회보』 78, 2007.
- \_\_\_\_\_, 「한성방면 조영철 선감」, 『대순회보』 80, 2008.
- \_\_\_\_\_, 「『전경』 용어」, 『대순회보』 92, 2009.
-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 \_\_\_\_\_,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 문화』 41, 2021.
- 이돈화, 「천도교경전석의(1)」, 『아세아연구』 6-2, 1963.
-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 지지가』에 수록된 가사작품 6편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 51, 2017.
- 조재훈, 『조재훈 문학선집 제3권 동학가요연구』, 서울: 솔출판사, 2018.
- 황현,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김종익 옮김, 고양: 역사비평사, 2016.
- 『국가보훈부』, 「황현」,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11310> (2023. 5. 15. 접속)

『한국가사문학』, <http://www.gasa.go.kr> (2023. 5. 15. 접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돈화」,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043> (2023. 5. 15. 접속)

■ Abstract

## Context and History of The Song of Gung-eul and Its Significance in Daesoon Thought

Choi Chi-bong\*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ree things: first, to find the compiled collection of songs that is most similar to *The Song of Gung-eul*, which is mentioned in *The Canonical Scripture* among the existing materials. Second, to examine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at version. And third, to explore how Daesoon Jinrihoe approaches *The Song of Gung-eul* from a certain perspective.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Song of Gung-eul* was widely spread by the Eastern Learning followers, and it seems that its various versions (異本) were created during the process of transcription and transmission. *The Canonical Scripture* mentions that *The Song of Gung-eul* twice, first as part of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related to Samyeongdang (四明堂), and second as referring to Jeung-san, the teacher who replaces Suwun, in relation to the Eastern Learning and the sage who achieves Dao-unification. From these passages, it can be inferred

---

\*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 Ph.D. Candidate, Editorial and Research of Confucian Canon, PKU

that *The Song of Gung-eul*, which was widely spread among people, was a mysterious and prophetic song that mentioned Jeungsan's descending and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This article infers that the Korean Literature of Song's collection of *The Song of Gung-eul* (UCI: G001+KR08-4850000101016.D0.V00004289) is the version most similar to the one mentioned in *The Canonical Scripture*. The overall content of this material denies the idea of leaving for a propitious court based on prophecies such as *The Prophecy of Jeong Gam*, while overcoming the uncertain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t the time through *The Song of Gung-eul*. Especially, the passage that mentions the reappearance of a sage who achieves Dao-unification reveals the people's desire for the emergence of a savior who can alleviate their suff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Daesoon Thought, the way people should live is provided through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and new ways for refuge and self-protection have been opened. In other words, in Daesoon Thought, Gung-eul (弓乙)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o follow and practice Jeungsan's teaching of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directly under the principle of the Great Ultimate (Taiji), beyond the form of a refuge mentioned in fortune-telling books or through auspicious talismans (靈符).

**Keywords:** Daesoon Thought, *The Song of Gung-eul*, True Eastern Learning, Gung-eul (弓乙), Samyeongdang (四明堂)